

포스텍 교수, 송곡기술상 수상

✎ 이부용 기자 | ㉠ 승인 2022.02.08 19:35

한세광 교수, 상금 수여 예정
약물전달시스템 최초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제 24회 송곡과학기술상 '신소재개발 분야' 수상자로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KIST 서울 성북구 본원에서 개최될 제 56회 KIST 개원기념식에서 한세광 교수에게 상금 2천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1999년 제정된 송곡과학기술상은 송곡(松谷) 최형섭 박사(KIST 초대 소장, 과학기술처 장관 역임)의 업적을 기리고자 제정됐다.

세계 정상수준의 신소재 개발 연구를 이룩했거나 국가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학구적 연구 및 연구관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국가과학기술 및 산업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자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한세광 교수는 생체 재료를 이용한 스마트 나노의약 및 스마트 웨어러블 의료기기 연구개발 성과를 Nature Reviews Materials, Nature Photonics, Science Advances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저널에 게재했으며 4건의 상업화에 성공한 바가 있다.

생체고분자 하이드로젤을 이용한 난치성 질환 유전자 변형 줄기세포 치료제와 당뇨 진단 및 합병증 치료 약물전달시스템이 장착된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연구자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주)화이바이오메드를 통해 본격적으로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혁신적인 융합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학술적, 산업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인정돼 제24회 송곡과학기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 교수는 "스마트 콘택트렌즈는 당뇨 환자의 혈당 측정뿐만 아니라 진단 결과에 따라 투약까지 할 수 있다"며 "신소재 및 스마트 웨어러블 의료기기에 대한 융합연구를 바탕으로 난치성 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기술 개발을 창의적으로 수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한세광 교수. 포스텍 제공



이부용 기자 queennn@paran.com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